로봇이 '척척'…인공관절 수술 성공률 높였다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 도입 출혈량·통증 적어 고령환자에 딱 뇌졸중 적정성 평가 6회째 1등급 경기북부 거점 병원 명성 재확인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순수 우 리기술로 만든 수술로봇을 도입해 임상 현장에서 사용한다. 명지병원은 최근 인 공관절 전문 수술로봇 큐비스 조인트(C UVIS joint)를 도입했다. 큐비스 조인 트는 큐렉소사가 국내기술로 제작한 수 술로봇이다. 인공관절 수술 시 뼈 절삭 전 과정을 로봇이 자동으로 진행해 기존 에 의사의 숙련도나 경험에 따라 수술 완성도에 편차가 있었던 것을 보완해주 면서 수술의 성공률을 높였다.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에 희소식

큐비스 조인트는 수술 전 3D 입체영 상으로 뼈의 모양과 형태, 위치 및 각도 등을 분석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술 때 정확히 절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술과정의 오차율이 낮고, 출혈량 및 통증도 적다. 그동안 통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에 부담을 느끼던 고령층의 수술 난이도가 크게 낮아지게 됐다.

또한 명지병원은 큐비스 조인트를 도 입하면서 의료용 수술로봇의 의료현장 실증사업에도 참여하게 됐다. 정형외과 김진구 교수팀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의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 의료용 수술로봇 분야 대상자로 선정돼 큐비스 조인트를 수술현장에서 활용하게 됐다. 김 교수는 스포츠의학 및 무릎 관절 분 야의 국내 대표적인 권위자다.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 3000례를 기록했고 스피드 스케이팅 이상화 선수 주치의를 비롯해 안정환, 홍성흔, 박태환 등 다수의 국가





▲ 명지병원은 뇌졸중 적정성에 대한 심평원 평가에서 6회 연속 최우수 1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명지 병원이 2009년 개원해 운영중인 뇌졸중 집중치료실. ◀ 명지병원이 최근 도입한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 조인트.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한 기기로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를 모으고 있다.

뼈를 깎아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로 정밀한 뼈 절삭이 치료성과에 직결된 다"며 "수술로봇을 활용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산 수술로봇 성

●뇌졸중 적정성 평가 6회 연속 1등급

능검증과 임상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등

국책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이번

한편, 명지병원은 최근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도 6회 연속 최우수 1등

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 2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 며 명지병원은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으로 선정됐다.

뇌졸중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 이 터지거나 막힘)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으로 삶의 질 저하.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 한다. 명지병원은 전문인력 구성, 뇌졸 중 집중치료실 운영, 연하장애선별검사 (첫식 이전),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 이내), 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등에 서 모두 만점을 맞았다.

전문인력 구성(구조등급)은 급성기 뇌졸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 는 지표이고 뇌영상검사 실시율은 뇌 속 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는지를 확인하 고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 1시간 말한다.

조기재활 평가율은 급성기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환자의 합병증을 줄이고 장애 정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명지병원은 2009년 뇌졸중집중치료 실을 갖춘 뇌졸중센터를 개설한 이후 뇌 혈관 질환의 진단과 수술, 중재술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뇌혈관센 터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북서부를 총괄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24시간 급성기 뇌졸중 환자 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박종호 명지병원 신경과 교수는 "특 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급성 기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골든타 임(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건강

목요일 *스로*초등다 2022년 8월 11일

현대약품. 伊 비건 인증 화장품 2종 출시



현대약품은 비건 인증 화장품 2종, '랩클 마일 드 클렌징 젤'(이하 클렌 징젤)과 '랩클스텝다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이하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사진)을 출시했다. 이탈리아 비건 인증을

획득하고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받았 다. 클렌징 젤은 약산성 저자극 클렌저로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끈적임 없 는 가벼운 사용감이 특징이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랩 클 공식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할인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려은단. 석류콜라겐 젤리스틱 업그레이드



고려은단은 기존 '석류콜라겐 젤리스틱'에 피부 속 진피 3대 성분을 추가한 '엘라스틴 히알 루론산 석류콜라겐 젤리스틱' (사진)을 출시했다. 스페인산 석 류 과즙 100%의 '석류콜라겐 젤 리스틱'에 탄력성이 높은 단백

질인 엘라스틴 100mg과 피부 조직에 존재하는 히알루 론산 120mg을 더했다. 어류의 비늘이나 껍질에서 추출 한 콜라겐 성분으로 평균 분자량 500달톤(Da)의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사용했다. 1포만으로 저분자 피쉬콜라겐 2000mg 섭취가 가능하다.

고대의료원-산림복지진흥원. ESG 강화 맞손

고려대의료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 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및 ESG실천을 통한 지속가능성장,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국립산 림치유원은 산림 복지, 치유, 연구 및 교육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고려대의료원은 의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다방면으로 나서고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H+양지병원-뷰티베이커리 '디지털 병원' MOU

H+양지병원(병원장 김상일)은 블록체인 신사업 LOT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뷰티베이커리와 함께 디지털 병 원 구축에 나선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병 원 구축 관련 MOU를 체결했다. 플랫폼 내 가상 병원 디지털 휴먼 닥터 등 헬스버스 컨텐츠 기획과 컨설팅 지 원, 관련 핵심 컨텐츠 운영, 관리 협업을 적극 전개할 계 획이다. 병원 측은 뷰티베이커리가 개발 중인 헬스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대표 선수 치료를 맡았다. 급을 받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핵심 거점 김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병원으로서의 명성을 다시 확인했다. 건 이내에 CT나 MRI를 찍어야 하는 것을

실증사업 참여를 평가했다.

극심한 통증 일으키는 '요로결석'…짜게 먹는 식습관이 주범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한식의 주류를 이루는 찌개류, 장류, 김 치류 등은 짠 맛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 이다.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요로결석이다.

요로결석이란 명칭 그대로 요로계(신 장, 요관, 방광)에 발생한 결석을 말한다.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돼 배뇨 장애 및 극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발 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요석 결정의 소변 내 정체 시간 이 길어져 요석 형성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음식을 짜게 먹으면 나트륨 과잉 섭취로 소변 내 결석 농축을 일으킨다. 게다가 나 트륨은 소변에 의한 칼슘 배출을 촉진한

다. 이로 인해 요로결석 발병률이 더욱 높 아질 수 있다.

요로결석이 나타나면 배뇨 시 심한 통 증을 일으킨다. 증상이 심한 경우 극심한 복통과 고열. 구토 증세까지 동반하기도 하다.

요로결석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속히 비 뇨기과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에 나서는 것이 좋다. 요로결석은 진단 후 개인 상태

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결 석 크기가 5mm 미만일 경우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거나 줄넘기 등의 운 동으로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보존적 치 료 방법을 시행한다. 증상이 심하면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쇄석술로 결석을 파괴해



8월 11일 (목) 음력: 7월 14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배출시킬 수 있다. 결석 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거 나 위치가 좋지 않다면 연성 요관내시경 수술을 선택한다.

청량리 열린비뇨기과 **안재성** 원장(비뇨기과 전문의)

8 호랑이 호랑이 **屋**別 행운색:청색 행운색:흰색 행운색:검정 행운색:적색 행운색:청색 행운색:검정 쥐 뱀 소 길방:북 길방:북 길방:동 길방:서 길방:남 길방:동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 오늘의 형상은 저녁놀이 산천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 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 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 야 할 시기이다. 경솔히 나아가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 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초목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이다. 세상은 바삐 돌아가는데 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 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 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 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 부딪친다. 정지해야 할 때는 정 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 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 않는 편이 좋으며 자신의 건강 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 지해야 한다. 태연하고 여유 있 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는 것 같다. 물질이나 금전적으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 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 는 마음으로 차분히 노력해서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 킬 수 있으니 극기의 정신이 필 현재의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 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 도모하기 바란다. 시기를 기다 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 이 강할 때이다. 검소하라. 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이 중요하다. 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처이다. 하겠다. **%** 개 **ি** ও 행운색:노랑 행운색:적색 행운색:검정 행운색:노랑 행운색:적색 행운색:흰색 연기 원숭이 생물 돼지 길방:북 길방:남 길방:서 길방:중앙 길방:중앙 길방:남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 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 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보 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 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 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 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 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 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관계도 원활하나 심사숙고 해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한다.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 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 니 성급하게 나서지 마라. 오늘 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 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 는 것이 유리하다. 침착한 행동 은 겁살일이다. 편법을 추구하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 입이 늘어 기쁘다. 실수해도 실 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 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 은 의외의 횡재수를 가져온다. 는 날이다. 자제하라. 이다. 자제하라. 용히 관망하라. 려는 기운이 왕성한 날이다. 속은 있는 날이다.

오늘의 날씨 11일(목) 인천 70/70 춘천 60/80 서울 70/70 22 26 26 28 대전 100/90 강릉 70/70 전주 70/90 24 26 29 27 29 부산 30/60 광주 30/80 대구 60/70 26 26 26 30 30 31 창원 30/60 제주 20/20 지역 28 26 최저 날씨 35 최고기온°C

<u> 人主</u> 法で The sportsdonga					제3886호	
발행인·편집약	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	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산업경제부장	안도영 양형모	스포츠부장 사진부장	정재우 고종철	엔터테인! 인쇄		이정연 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	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	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	0 제보·	투고 02-361-	1616 so	ol@donga	.com